

전남 시·군 경쟁적으로 産團 조성하더니... 단체장 장밋빛 약속 빛더미로 돌아왔다

차입 상황 도래에 전전긍긍

산단단지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자금을 차입한 전남지역 시·군들이 1~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환기일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기업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앞다퉀 산단을 조성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쳐 분양가가 급락하고 불경기 속에 분양률도 저조해 제 때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빛 독축'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거나 상환기일 연기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내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단지의 면적이 2200여만㎡로, 연평균 수요면적 114만㎡의 19.6배에 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는 수요 면적 대비 10배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남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의 2배에 이를 만큼 산업단지 '포화상태'지만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내걸고 비슷한 시기에 경쟁적으로 조성한 것이 화근이었다.

2000년대 초반 산업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뒤 지자체들이 산단 조성을 서두르면서 전남지역 내 조성사업 완료시기가 2013~2015년인 곳만 광양 세풍(지정면적 300만㎡) 등 17곳에 달한다.

이렇듯 분양 및 준공시기가 겹치면서 시·군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대출 상환기일이 임박한 시·군의 경우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분양마저 안 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 대양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5.2%의 금리에 2902억원을 차입한 목포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2000억원을 써 이지만 180억원을 지출했다. 목포시는 차입 조건에 따라 오는 2016년 2월 대양산단 준공시점에 2902억원의 절반인 1451억원, 2017년 2월 82%인 2380억원, 나머지는 2018년 8월까지 완납해야 한다. 33%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대양산단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나 분양에 들어갈 방침이다.

2000억원을 4.3%에 빌린 나주 혁신산단의 경우 상환기일이 2015년 말로,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1년에 이지만 80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3년 이내 분양을 마치기 위해 간간히 쓰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높고 가깝게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단지, 멀게는 장성 바이오피스단지, 동함평산단과 경쟁을 벌이고 있어 현실은 녹록하지 못한 실정이다.

4.25% 2년 만기 분할 균등상환 조건으로 550억원을 빌려 동함평산단을 조성한 함평군은 매달 1억9000만원의 이자 부담에 허덕이며 상환기일 2015년 11월13일이 다가오자 안전행정부에 지방채 300억원 발행 승인을 신청해둔 상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6 아셈문화장관회의의 광주서 열려야



농업박람회 오늘 나주시 개막

이 함께 하는 생명농업'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10개의 주제관과 판매장터 2개가 운영된다. >관련기사 11면

'제12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23일~11월2일)'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이색농산물관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

이 함께 하는 생명농업'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10개의 주제관과 판매장터 2개가 운영된다. >관련기사 11면

이 함께 하는 생명농업'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10개의 주제관과 판매장터 2개가 운영된다. >관련기사 11면

이 함께 하는 생명농업'을 주제로 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10개의 주제관과 판매장터 2개가 운영된다. >관련기사 11면

정부, 한국 개최 확정 발표
문화수도 효과 극대화 기회
행사 유치활동 적극 나서야

정부가 2016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문화장관회의의 한국 개최를 확정 발표하자 광주지역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를 해마다 광주에서 열어온 만큼 유럽과도 교류채널을 확보하는 아셈 문화장관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19~2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제6차 아셈 문화장관회의에서 제7차 회의의 한국 개최가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아셈 문화장관회의는 아시아 20개국, 유럽 30개국 등 모두 50여개국이 회원으로 있는 기구로, 행사에 참가하는 각국 문화 전문가만 최소 300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문화관련 여객, 국제적인 문화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사실상 '문화정상회의'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문화융성 정책을 대표하고 있는 광주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아셈회의 개최지를 광주로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하는 아시아문화장관 회의와 2016년 아셈 문화장관회의까지 이어지면 국제사업의 위상을 다지고 광주의 문화지력을 유럽에게까지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도 이런 점을 감안해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의 핵심사업에 아셈문화장관회의의 광주유치를 포함시켜 놓았다. 실제 추진단은 지난 18일 한-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했고 동남아시아 문화장관회의(2013년), 중앙아시아문화장관회의(2012년)를 열어오는 등 꾸준히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에 공을 들여왔다. 이는 문화전당 콘텐츠를 확보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

광주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유럽 각국과 교류할 수 있는 아셈회의까지 광주에서 열리게 되면 광주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물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행사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빛원전 잦은 중단
주민은 불안하다 >6면

남만이 살아있는
홍풍의 밤 >18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대학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일시: 11월 6일(목) 저녁7시
장소: 은혜관 3층 대예배실
문의: 062)605-1130

광신대학교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윤종규 전 부사장

나주 남평·광주상고 출신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윤종규(58·사진) 전 KB금융 부사장이 선정됐다. KB금융지주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4명(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회장,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벌인 뒤 투표를 거쳐 차기 회장 후보에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을 선정했다.

윤 전 부사장은 관피아 척결 바람을 타고 내부 출신이라는 강점에 힘입어 KB금융 이사회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나주 남평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윤 전 부사장은 외환은행에 입행한 뒤 행시 25회(1981년)에 차석으로 필기시험에 붙었으나 학내 시위 전력 등으로 면접에서 탈락했다. 이후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를 지내다 2002

년 국민은행에 발을 들였다. 당시 고(故)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윤 전 부사장을 영입하기 위해 삼고초려했고 영입 후에는 직접 '상고 출신 천재'라는 문구를 넣어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다.

윤 전 부사장은 재무전략본부장(CFO)으로 있을 때 처리한 국민카드 합병회계가 문제가 되자 2004년 10월 스스로 물러났으나 2010년 8월 KB금융지주 부사장으로 복귀했다. 부행장으로서 재무·전략·영업



등을 두루 경험해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KB 내부에서 뛰어난 전략가로 평가받았다.

내부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그는 어윤대 회장 시절 은행장 선출을 위해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최상위권에 뽑히기도 했다.

한편, 최종 후보자는 다음달 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광면적침이나 이모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